

피케티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 정 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1. 피케티 현상

2014년 경제학계에 혜성이 출현했다. 토마 피케티라는 마흔세 살의 프랑스 경제학자가 쓴 한 권의 책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책 제목도 특이하다.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이 책은 2013년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고 그런 책인가 하고 여겨졌다. 그런데 2014년 영어 번역판이 미국에서 출판되자 돌연 세인의 주목을 끌면서 아마존에서 책이 동나고, 지금까지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다. 피케티는 이 책 한 권으로 일약 세계적 경제학자 반열에 올랐고, 요즘 피케티를 모르면 망신을 당하기 알맞다. 문자 그대로 ‘피케티 현상’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것은 학문 세계의 일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과거 하나의 에피소드를 연상시킨다. 케인즈는 1936년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써서 경제학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받는데, 이 책에서 케인즈가 내세운 유효수요의 이론은 실은 그보다 몇 년 전 폴란드의 경제학자 미하일 칼레츠키가 폴란드 말로 쓴 논문에서 처음 제시했던 이론이었다. 칼레츠키의 글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혀 버렸는데, 그 뒤에 나온 케인즈의 책은 세상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는 책을 쓰려면 모름지기 영어로 써야 한다는 농담이 생겼다.

피케티의 책은 700페이지나 되므로 다 읽으려면 상당한 인내심을 요한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많은 숫자와 도표가 나온다. 숫자는 너무 많아 따라가기 힘들데, 사실 일반 독자들은 일일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큰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수많은 도표는 저자의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제학 책치고는 수학적 거의 없고, 있다고 해봤자 초등학교 산수 수준의 식이 딱 3개 나올 뿐이다.

이런 경제학 책은 참 드물다. 피케티는 학부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학을 아주 잘하는데도 수학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19세기 말 세계 경제학계의 1인자였던 케임브리지대의 앨프리드 마셜을 연상시킨다. 마셜은 수학자에 버금가는 수학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경제학 원리』에는 간단한 수학이 조금 나올 뿐이다. 요새 경제학자 중에는 마셜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피케티는 예외적이고 일단 독자들의 호감을 살 만하다.

피케티의 장점은 또 있다. 이 책은 아주 인문학적이다. 책에는 제인 오스틴, 오노레 드 발자크의 소설이 자주 등장하고 길게 인용된다. 이런 경제학 책은 두 눈 비비고 찾아봐도 없다. 요즘 경제학계에는 이런 자조적 표현이 있다. “교수들은 논문 쓰기에 바빠 연구할 시간이 없고, 연구하기에 바빠 책 읽을 시간이 없다.” 누가 봐도 이견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 대학의 자화상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그래서 안 되지만 학자들은 실제로 논문 쓰기에 쫓겨 소설 읽을 시간조차 없다.

그런데 피케티는 다르다. 그는 소설을 즐겨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경제학에 응용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는 19세기 소설에서 나오는 자본과 수익률 개념을 소개하면서 그런 개념이 더 이상 현대 소설에는 나오지 않는 이유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만일 이 책이 한국 경제학자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면 낙제를 받을지 모른다. 수학을 도무지 쓰지 않고, 소설이나 인용하고 있으니 아예 낙제가 아니겠는가. 피케티는 대단하다. 그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소설을 읽고 심지어 영화까지 이야기한다. 인문정신을 통해 경제학을 풍부하게 만든 공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학계가 배워야 할 자세일 것이다. 우리는 말로만 인문학의 부활 운운하면서 인문을 너무나 멀리하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피케티의 책은 소설이 아니고 불평등을 다룬 경제학 저서다. 근래에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로버트 라이히의 『슈퍼 자본주의』, 조셉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듯이 요즘은 불평등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몇 년 전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에서 나타난 ‘1대 99의 사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피케티의 책은 샌들, 라이히, 스티글리츠의 책과는 달리 장기 자료를 통해 이야기한다. 300년에 걸친 여러 나라—주로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 등—의 장기 통계를 가지고 불평등의 변천을 보여주며,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앞에 닥칠 미래를 이야기한다. 아주 특이하게도 3개의 수학 공식과 300년의 역사적 통계자료, 이것이 피케티의 무기다.

2. 자본주의의 기본법칙

그런데 피케티가 그리는 자본주의의 미래가 심상찮다. 그에 따르면 지난 300년간의 자본주의는 잠시만 주의를 소홀히 하면 불평등이 커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19세기에도 그러했고 최근에

도 그러하다. 다만 1914~1945년 시기에만 잠시 불평등이 축소되었을 뿐이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예외적 시기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980년 이후에는 다시 불평등이 커지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21세기 내내 계속되어 우리의 미래는 별로 밝지 않다는 우울한 예측이 이 책의 주장이다.

20세기 초중반에 불평등이 축소된 이유는 연평균 3%의 고성장,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후의 누진소득세 도입, 전쟁으로 인한 파괴, 인플레이션 등 우발적 요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주의의 등장으로 소득세율은 다투어 인하되었고, 앞으로 장기적 성장률도 1.5%를 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불평등 강화 요소를 상쇄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 강화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답은 그가 자본주의의 기본법칙이라고 이름 붙인 두 개의 간단한 수식을 보면 된다. 초등학교만 다녔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다. 그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은 다음과 같다.

$$\alpha = r \times \beta \quad (1)$$

여기서 α 는 국민소득 중에서 자본에 돌아가는 몫이고, r 은 자본의 수익률, β 는 자본/소득 비율이다. 우리가 국민소득을 Y 라고 하고 그것이 각각 노동과 자본에 나누어지는 몫을 노동소득(W), 자본소득(P)이라고 하면 아래의 식이 성립된다.

$$Y = W + P \quad (2)$$

이것은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다. 1년 동안의 자본소득 P 는 자본의 크기(K)에 자본 수익률(r)을 곱해준 값이므로 $P = rK$ 가 되고, 따라서 (1)식을 다시 쓰면 아래와 같다.

$$\alpha = P/Y = rK/Y = r\beta \quad (3)$$

이런 관계가 성립하므로 위의 제1기본법칙이 유도된다. 따라서 피케티의 제1기본법칙은 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은 항등식이다.

피케티는 α 의 값이 21세기에 점차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왜냐하면 r 은 대체로 4~5%로 일정한데, β 의 값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왜 β 값이 높아질까? 그것은 β 값을 결정하는 제2기본법칙을 보면 알 수 있다.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은 다음과 같다.

$$\beta = s/g \quad (4)$$

여기서 β 는 자본/소득 비율, s 는 저축률, g 는 경제성장률이다. 이 식은 원래 해러드-도마 성장모델에서 유래한다.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최초의 모델인 해러드-도마 모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발표되었는데, 오랫동안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성장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영국 경제학자 해러드와 러시아 경제학자 도마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독자적으로 발견한 이 모델은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붙여 해러드-도마 성장모델이라고 불린다.

이 모델은 원래 $g = s/\beta$ 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항등식은 아니고 일종의 균형성장 조건이다. 이것을 약간 변형하면 위의 (4)식을 얻는다. 이것이 피케티의 제2기본법칙이다. 여기서 β 의 값은 s/g 로 정해지는데, 21세기에 g 의 값은 낮아질 공산이 크고(인구 증가가 정체하고 기술 진보에도 한계가 있어서), s 는 일정하다고 하면 β 값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는 달리 설명할 수도 있다. (1)식에다가 (2)식을 대입해서 변형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alpha = r \times \beta = r \times s/g \quad (5)$$

여기서 저축률 s 를 일정하다고 하면 α 의 값은 r 과 g 의 값 중 어느 쪽이 큰가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한다. 즉 r 이 g 보다 크면 α 는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r 이 g 보다 작으면 α 는 낮아진다. 다른 말로 하면 α 는 r 과 g 사이의 경주에 의해 결정된다. r 은 역사적으로 거의 일정한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4~5% 수준이라는 것, 그런 반면 g 는 20세기 중반 3%를 달성한 시기를 예외로 하면 대체로 그보다 훨씬 낮다고 피케티는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성장률 g 는 1700년까지는 제로에 가까웠고(경제성장이 아예 없었다), 그 뒤 18세기에 평균 약 0.5%, 19세기에는 1.5%였으며, 20세기에 와서는 3%라는 비약적인 속도로 성장했는데, 20세기는 긴 역사의 눈으로 보면 아주 예외적인 시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Golden Age of Capitalism)에 선진국은 4%라는 사상 유례없는 고성장 국면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확실히 저성장이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21세기는 어떻게 될까? 피케티는 21세기에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두 가지 힘, 즉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21세기의 g 는 1.5%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r 과 g 의 경주는 보나 마나 r 의 승리다. 피케티는 이것을 과거(r)가 미래(g)를 잡아먹는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인클로저 운동에 의해 농민들이 땅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광경을 보고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1516)에서 이야기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연상시킨다.

r 은 4~5%, g 는 1.5%라면 21세기에 α 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21세기에 자본/소득 비율(β)은 높아지고, 국민소득 중에서 자본의 몫(α)은 계속 커질 것이며 노동의 몫은 줄어들 것이다. 21세기에는 자본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자본의 소득 몫이 커지며, 자본이 자본을 낳는 소위 세습자본

주의(patrimonial capitalism)가 도래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 책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다. 마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쉐 강하의 음습한 지하도처럼.

이런 암울한 세계는 인류 역사상 처음 목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19세기 말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1871년에서 1914년 사이의 시대를 ‘아름다운 시대(벨 에포크)’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는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 교양이 발달했던 때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아름다움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고, 보통 사람들로서는 조금도 아름답지 않은 시기였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사상 최고에 이르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β 값은 6~7 수준에 이르렀고 당연히 α 값도 커졌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더불어 ‘벨 에포크’는 종말을 고했는데, 그 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이어지면서 β 값은 2~3이라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α 값도 작아졌다.

그 이유는 각국이 전비 조달을 목적으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보수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했다는 점, 그리고 뉴딜 정책과 같은 각종 진보적인 공공정책을 채택한 사실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전후 30년간 세계 자본주의가 사상 최고의 호황과 고성장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4%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다.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 시기에 소득 불평등이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대압축(The Great Compression)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30년 만에 끝나버렸고, 1980년대부터는 미국, 영국에서 레이건, 대처에 의한 시장만능주의 시대가 온다. 작은 정부를 신봉하는 경제철학에 따라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정부의 역할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불평등의 상승이다. 한때 2~3의 수준으로 낮아졌던 자본/소득 비율(β)이 다시 5~6의 수준으로 높아졌고, α 도 다시 커지고 있다. 21세기는 이대로 두면 불평등이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세습자본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피케티의 예측이다.

3. 해법은 무엇인가?

이런 암울한 전망에 대해 피케티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자본의 몫이 계속 커지고 소득 불평등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는 누진적 소득세율의 인상을 제안한다. 소득세는 현재 모든 나라에서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다(즉 고소득일수록 세율이 높다). 소득세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누진세가 도입된 것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나라에서 누진세는 보수파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다가 갑자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전비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급작스레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이 하도 다급해 보수파도 반대를 못 했다. 그래서 각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웬만하면 70%를 넘었고, 심지어 90%를 넘는 나라도 있었다. 프랑스, 독일보다 미국, 영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더 높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런 높은 소득세율 체제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 주의가 등장하면서 급속히 무너졌다. 작은 정부와 감세가 마치 시대정신이나 되는 것처럼 숭상되었고, 각국은 앞다투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최고세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으니 금석지감이 있다. 피케티는 이렇게 낮은 소득세율은 다시 최고위 경영자들의 보수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최고소득세율이 90%여서 고위 경영진들이 연봉을 올려봐야 세금으로 다 빼앗기니 구태여 애를 써서 연봉 인상을 할 유인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제 최고세율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워런 버핏은 얼마 전 자신의 소득세율이 자기 비서보다 낮은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정면 비판했다) 임원들이 스스로 연봉을 인상할 유인이 아주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미국 최고위 경영자들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는 최고위 경영자의 보수가 말단 직원 급여의 20배였으나, 위에서 말한 로버트 라이히의 저서 『슈퍼 자본주의』에 따르면 지금은 무려 400배나 되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분배에 관한 경제학의 표준적 설명인 한계생산성 이론에 따라 볼 때 과연 이들의 생산성이 400배나 되는가? 피케티는 한계생산성 이론을 개인의 한계생산성 측정의 어려움, 제도와 규칙을 무시하는 점 등을 들어 비판한다. 피케티는 고위 임원은 스스로의 연봉을 정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받는 고액 연봉을 ‘행운의 급여(pay for luck)’라고 부른다. 행운의 급여의 배경에는 최근 경제의 세계화 경향이나 기술 혁신도 한몫했겠지만 피케티의 말처럼 소득세 감세가 하나의 요인이었음에 틀림없다.

피케티는 노동 의욕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최고소득세율을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한 끝에 80%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과거 자본주의 황금기 때의 소득세율이다. 그러면 지금 30%대로 툭 떨어진 세율을 과연 그렇게 높이 올릴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는 의문부호를 단다. 이것은 결국 정치의 문제인데, 피케티는 세습자본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하더라도 소득세율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 하나 피케티가 제안하는 정책은 세계 자본세(global capital tax)다.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은 개인이 소유하는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뜻하는데 이는 주택, 부동산, 실물자본, 특허권, 금융자산 등을 망라한다. 따라서 이 세금은 유럽 몇몇 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유세와 비슷하다. 자본세를 과세할 때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피케티는 하나의 가상적인 예로서 100만 유로 이하의 순자산은 면세, 100~500만 유로는 1%, 500만 유로 이상은 2%의 세율을 제안하고 있다. 이 세금은 상당히 과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면이 있다. 만일 이런 세금을 한 나라에서 과세하면 틀림없이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국적을 옮길 것이기 때문에 피케티는 만국 공통으로 세계 자본세를 매기자고 제안한다.

세계 자본세에 대해서는 많은 논평자가 실현 가능성을 의심한다. 지금과 같이 각국이 서로 세

금을 인하여가면서 해외자본을 유치하려고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벌이는 마당에 이런 급진적인 과세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하기가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각국은 해외투자 유치에 국가의 명운을 걸게 되고, 따라서 해외투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임금, 복지, 환경, 조세 등에서 서로 자국의 조건을 양보하고 후퇴시키는, 소위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를 해야 한다는 가설도 있긴 하다. 피케티도 세계 자본세의 실행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제안을 스스로 유토피아적이라고 말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피케티는 21세기에 r 이 g 보다 높아져서 자본의 몫이 커지는 경향, 그리고 세습자본주의의 도래, 이런 암울한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피케티가 생각하는 21세기의 국가는 사회적 국가(social state)다. 그에 의하면 국가의 역할은 20세기 이후 큰 지각변동을 해왔다. 20세기 초반 해도 세수 규모로 측정한 국가의 크기는 국민소득의 1할 미만이었다. 이런 재정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국방, 치안, 사법 정도가 전부다. 이것이 소위 야경국가 혹은 최소국가다.

그러나 20세기가 대공황과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의 역할은 급속히 증대됐다. 보편적 의료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됐고, 거기에 연금, 실업보험, 이전지출 등의 사회보장이 추가됐다. 그리하여 선진국에서 국가의 크기는 국민소득의 30~50%에 달한다. 여기에 1980년대 이후 보수 반혁명의 역풍이 불어 다소 후퇴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 국가는 건재하다.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는 21세기에 우리는 어떤 사회적 국가를 지향할 것인가, 이것이 피케티가 던지는 질문이다.

4. 피케티의 선구자들

이상에서 요약해본 피케티의 방대한 연구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분명 과거 수많은 선행 연구의 배경 속에서 장시간 숙성된 끝에 탄생한 것이다. 그것을 정리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그의 책 제목이 맑스의 『자본론』을 연상시키는데,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광의의 부 또는 자산)은 광의의 자본이며, 맑스의 자본(생산자본)과는 성격이 다르다. 맑스가 『자본론』을 집필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아들 어깨 너머로 흘끗 책 제목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애야, 나는 네가 자본에 대해 책을 쓰는 것보다는 자본을 좀 만들면 더 좋겠구나.” 피케티의 자본 개념은 맑스보다는 그의 어머니가 말한 자본의 개념에 가깝다.

피케티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정통과 경제학의 흐름에 충실하며, 맑스 경제학의 방법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그는 맑스의 『자본론』을 아직 읽지 않았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그는 『자본론』에는 통계자료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피케티는 좌파의 열성 당원인 부모 밑에서 자란 가정 배경 때문에 진보적 사상의 소유자임에는 틀림없으나, 맑스가 꿈꾸었던 공산

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전혀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 분류하자면 그는 사회민주주의자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는 2007년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였던 세골렌 루아얄의 자문을 맡았던 경력도 있다.

또한 피케티는 헨리 조지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말 미국의 사상가로서 당시 미국에서 횡행하던 토지 투기 현상에 주목해서 인류의 가장 큰 불평등은 토지 사유에서 왔다고 주장했다. 토지는 원래 하느님이 인류에게 공동으로 쓰라고 준 선물인데, 일부에서 이것을 독점하는 바람에 소수의 지주 수중에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반면 토지를 갖지 못한 다수는 빈곤에 빠진다는 것이 조지의 진단이었다. 이런 근본적인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그의 해법은 토지 보유에 대한 과세(토지가치세 혹은 지대세)였다.

헨리 조지는 맑스와 만난 적은 없지만 서로 알고 논쟁하는 사이였다. 맑스는 자본주의의 주요 불평등의 전선이 피착취(노동자) 계급과 착취 계급(자본가와 지주 포함)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에 반해 헨리 조지는 자본주의의 주요 불평등이 비생산적 지주 계급과 생산적 계급(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두 사람의 자본주의 분석이 판이한 이상 두 사람의 해법도 달랐다. 맑스는 노동자 계급의 단결, 투쟁과 혁명을 주장한 반면 헨리 조지는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 보유세 강화를 외쳤다.

피케티는 맑스보다는 헨리 조지에 더 가까워 보인다. 특히 자본의 불평등에 주목하고 있는 점에서 헨리 조지와 비슷한데, 다만 피케티의 자본은 토지를 포함하는 좀 더 광의의 개념이다. 피케티는 과거 농경 시절에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자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며, 따라서 토지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불평등의 원천도 아니라고 본다. 그 대신 문제의 해법에서는 두 사람이 비슷한 면이 있다. 헨리 조지의 토지 보유세와 피케티의 자본세는 원리가 비슷하면서 다만 범위가 다를 뿐이다. 조지는 토지 보유세를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각했고, 피케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한다.

피케티는 침침한 불빛 아래에서 방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다. 이는 별로 화려하지 않은 일이고 해본 사람만 아는 엄청난 참을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그가 만든 수많은 시계열 자료는 300년에 걸쳐 있고,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여러 나라를 망라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 결과를 농축한 것이 이 책이다. 이처럼 많은 통계표와 그래프를 가진 책도 드물 것이다.

이런 연구 방법은 17~18세기 정치산술을 연상시킨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윌리엄 페티, 그레고리 킹 등 소위 정치산술가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경제학이 아직 하나의 연구 분야로 독립하기 전에 수많은 통계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선구적인 학자들로서 이때는 아직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분화가 이뤄지기 전이니 이들을 종합 사회과학의 선구자라고 불러도 좋다. 피케티는 이 책에서 이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피케티를 현대의 정치산술가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또한 피케티의 연구 방법은 경제학의 원조라 불리는 18세기 프랑스 중농주의의 방법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케네, 튀르고를 비롯한 중농주의자들은 많은 통계를 수집하여 사회표를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수량적 분석을 시도한 경제학 최초의 학파인데, 애덤 스미스와 비슷한 시대이면서 영국의 고전과 경제학과는 다른 실증적 학풍을 지닌, 말하자면 근대 경제학의 원조인 셈이다. 피케티의 몸 속에는 프랑스의 옛 전통의 피가 흐른다.

정치산술과 중농주의의 현대적 후예가 피케티인 셈인데, 그렇게 본다면 선배가 한 사람 더 있다. 다른 아님 사이먼 쿠즈네츠다. 피케티는 책에서 쿠즈네츠를 반박하는 데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주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방법론에서는 아주 비슷한 편이다. 쿠즈네츠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각국의 국민소득 통계를 수집해 방대한 시계열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분석해서 여러 중요한 발견을 한 경제학자다. 그는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연역적, 분석적 방법을 사용할 때 일찍이 귀납적, 통계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홀로 매진했던 선구자다. 각국의 장기 통계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창고 속의 먼지를 털어가면서 자료를 모으고 앞뒤를 맞춰 체계적인 시계열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중요한 근대 경제성장의 특징을 추출해냈으니 현대 경제학에 끼친 그의 공로는 참으로 지대하다고 하겠다. 그의 주저는 『근대 경제성장론(Modern Economic Growth)』인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찍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피케티 책을 읽으면 마치 쿠즈네츠가 살아 돌아온 느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방법론은 비슷하나 두 사람의 결론은 반대다. 불평등에 관한 쿠즈네츠의 가설은 유명한 ‘역U자 가설’이다. 즉 어떤 국가의 경제발전 초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커지다가 어느 단계를 지나면 결국 불평등이 축소된다는 가설이다. 이것은 쿠즈네츠가 1955년 미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있을 때 경제학회 연차 총회에서 회장 연설로 발표한 논문이다. 당시는 선진국조차 통계 수준이 형편없어서 각국의 소득분배 자료는 아주 희귀했다. 쿠즈네츠는 몇몇 국가의 얼마 안 되는 자료를 모아 ‘추측’이라고 겸손한 표현을 쓰면서 역U자 가설을 발표했는데, 이 문제는 그 뒤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피케티는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을 일축하면서 그에 상반되는 U자 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의 소득 불평등을 조사한 끝에 20세기를 관통하는 거대한 U자형 곡선을 발견했다 즉, 쿠즈네츠는 1955년 시점에서 글을 쓰면서 몇몇 선진국의 소득분배가 불평등 심화에서 완화로 바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피케티의 연구에 따르면 그 시점은 불평등이 가장 낮아진 U자형 곡선의 저점에 해당된다. 피케티의 주장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1950년을 저점으로 해서 불평등이 U자형 모양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21세기에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연구 시점과 이용 가능한 자료의 차이에서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피케티는 책에서 쿠즈네츠를 너무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연구 방법상 동지적 측면을 부각시켜도 좋을 것이다. 둘 다 경제학의 주류에서 벗어난 외로운 실

증분석가들이다. 경제학에서 비슷한 전례가 있다. 맑스의 『자본론』 제1권이 출판된 해가 1867년이었는데(2권, 3권은 맑스 사후 엥겔스에 의해 출판됐다) 그 책에서 맑스는 자본주의의 기본법칙(피케티의 기본법칙을 연상시키는)으로 노동자의 궁핍화 가설을 내세웠다.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점점 더 큰 자본이 집적·집중되고 노동자는 궁핍화를 면할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이런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1세기도 훨씬 지난 20세기 말에 와서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을 연구하고 뒷받침한 경제학자 제프리 윌리엄슨(Jeffrey Williamson)은 19세기 영국의 소득분배 자료를 모아 분석한 뒤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했다. 즉 맑스가 필생의 업적인 『자본론』을 쓴 1867년은 영국의 소득분배에서 최악의 시기였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말부터 1860년대까지 영국의 소득분배는 악화일로였고 그 뒤 비로소 개선의 길로 접어든 거대한 역U자 모양을 이뤘는데, 하필 맑스가 불평등의 정점인 시점에 책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조금 더 뒤에 책을 썼더라면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적, 비판적 결론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케인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아무리 독창적으로 들리는 주장이라도 실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오래전에 죽은 경제학자의 아이디어인 경우가 많다고. 피케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피케티의 연구 방법과 주장은 대단히 독창적이지만 그것은 단독 작품이 아니다. 영국의 앤서니 엡킨슨, 미국 버클리대의 이매뉴얼 사에즈 등의 경제학자들과 오랫동안 협력해서 국제적 소득분배 자료를 발굴하고, 공동 연구를 해온 결실이 이 책으로 나타났다고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상사의 연원을 찾아보면 피케티의 연구 방법과 사고방식의 근저에는 중농주의, 정치산술, 칼 맑스, 헨리 조지, 그리고 사이먼 쿠즈네츠의 영향이 짙게 배여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5. 피케티 찬반 논쟁

피케티의 책이 나오자마자 경제학계가 별집을 쭈셔놓은 듯 시끄럽다. 피케티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하도 다양해서 이런 논쟁을 정리하기만 해도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다.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같은 진보적인 경제학자는 피케티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반면, 현재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교과서 『경제학원론』의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 같은 보수적인 경제학자는 피케티를 혹평하고 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케티는 워낙 거물이 되어 이제는 비판하는 쪽에서도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영국의 보수적 성향의 유서 깊은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피케티와 사상적으로 거리가 멀지만 그를 가리켜 ‘맑스보다 크다(Bigger than Marx)’라는 표현으로 찬사를 보냈다.

또 다른 영국의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도 피케티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특집을 실었다. 경제 편집장인 크리스 가일스(Chris Giles)가 피케티의 통계 처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는데, 예를 들면 피케티가 통계 수치를 부풀리거나, 비교 연도를 엉터리로 선택하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통계를 선택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부의 집중이 실제로는 피케티가 밝힌 것보다 훨씬 더 양호하다고 주장한 것이 핵심인데, 영국 상위 10%가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피케티는 71%라고 주장했던 반면, 자신의 계산에 따르면 44%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큰 차이로서 만일 피케티가 틀렸다면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나온 반박문에서 피케티는 가일스가 자료 취급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함으로써 오히려 『과이넨셜 타임스』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자료 문제라면 누구라도 15년간 통계자료를 만져온 피케티를 대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케티의 약점은 이론 쪽에 있을지 모른다. 경제학자들은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소득 비율(β)의 장기적인 상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풍부해진 자본은 그 수익률(r)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소득에서 자본의 몫($\alpha = r \times \beta$)이 반드시 증가하리라는 법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자본의 수량이 증가하면 그 가격은 하락하므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값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생산요소 사이의 대체탄력성에 따라 결론이 나는 다소 전문적인 문제인데, 피케티는 대체탄력성의 값이 1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이를 난센스로 해석한다. 경제학계의 신동이자 악동으로 소문난 하버드대의 로런스 서머스(Lawrence Summers)(오바마 행정부의 국민경제회의 의장 역임)는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금시조문이라며 일축했다.

그 밖에 다른 비판으로는 최근 자본/소득 비율(β) 상승은 주로 부동산의 가격 앙등 때문이므로 그 부분을 빼면 피케티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박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피케티의 자본 개념을 생각하면, 정곡을 찌른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피케티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순저축률이 매우 높아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현실에서는 순저축률도 성장률의 함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피케티 책에 제법 길게 소개되어 있는 소위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The Capital Controversy)(혹은 케임브리지-케임브리지 논쟁)에 대해서 제임스 갤브레이스(James K. Galbraith)는 피케티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논쟁은 1950~1960년대에 미국 케임브리지 시에 있는 MIT대의 새뮤얼슨, 솔로와 다른 한편 영국 케임브리지 시에 있는 케임브리지대의 로빈슨, 스라파, 파지네티에 의해 벌어진 논쟁으로서 자본의 개념, 한계생산력이론의 타당성 여부, 성장이론, 분배이론을 둘러싼 진검승부였다. 결국 1966년에 새뮤얼슨이 오류를 인정함으로써 미국 신고전파와 영국의 신케인즈파에 패배한 유명한 논쟁이다. 피케티는 젊은 시절 MIT에서 3년간 연구생활을 하다가 프랑스로 돌아갔기 때문에 본인의 사상적 성향과는 달리 부지불식간에 MIT 쪽에 친근한 태도가 드러난 게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피케티의 설득력은 아직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피케티의 장대하고 강력한 주장을 뒤엎기에는 부족한 사소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케티의 이론 구조가 워낙 단순하면서 3세기에 걸친 방대한 통계자료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허무는 것은 정통과 경제학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피케티의 주장은 정통과 경제학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불쾌한 내용이 많으므로 이를 묵과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앞으로 피케티 논쟁은 매우 흥미진진한 한 편의 드라마가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다.

6. 피케티와 한국

끝으로 피케티와 한국의 현실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성장지상주의를 신봉하는 한국에서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 문제는 금기 비슷하게 취급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자료도 부족하고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저 한국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평등한 나라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적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케티 현상이 일어났다. 한국에서도 피케티의 α , β 를 추정하려는 노력이 막 시작되고 있다.

마침 2014년 5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국민대차대조표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다른 나라에는 더러 있으나 한국에는 없던 통계자료다. 이것 없이는 β 의 추정이 불가능한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때마침 정부가 새 통계를 발표한 것이다. 이 자료를 갖고 새사연(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정태인 원장이 잠정 추계한 것을 보면 한국의 β 값은 7을 넘는다. 이 값은 선진국에서 대개 5~6 정도다. 피케티 연구에서 β 값이 가장 높은 일본, 이탈리아보다 한국이 더 높게 나온 것은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이것은 100년 전 프랑스의 소위 벨 에포크 시대에나 있었던 높은 값이다. 추측건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의 땅값이 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한다. 다만 이 추정치는 아직 잠정적인 계산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하면 확실한 답이 나올 것이다.

또 하나 피케티 현상이 한국에 주는 충격이 있다. 그것은 한국 경제학계의 풍토에 관한 것이다. 피케티는 이 책에서 현대 정통과 경제학에 대단히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는 경제과학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고(노벨상은 경제과학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경제학이 과거 전통이었던 정치경제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 그의 연구 방법은 지금까지 추상적, 사변적 논리에 빠진 경제학자들이 무시해왔던 아주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성실히 수집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작업이어서 추상적인 분석에 능하고 세상일에는 초연한 한국 경제학자들에게 크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실 요즘 한국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은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수학에 더 가깝다.

지금 한국 경제학에는 일대 반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은 학술지에 논문 신기에 급급해 현실의 중요한 경제문제를 외면한 채 형식적, 추상적 분석에만 골몰해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

럽다. 학술지 논문은 3명(본인과 2명의 심사위원) 말고는 아무도 안 읽는다는 자조 섞인 농담도 있는데, 왜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고 집착해왔는지 반문해볼 때다. 경제학자들은 효용이 의심스러운 논문 쓰기 전쟁에 내몰려 대학에서 협력은 적고 경쟁은 과잉이다.

피케티는 자신의 책이 역사학자에게는 너무 경제적이고, 경제학자들에게는 너무 역사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역사와 경제를 넘나드는 그의 접근 방법은 일찍이 한국 경제학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역사를 무시하고, 인문을 무시하고 경제학으로 세상만사를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 오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소설 읽을 시간조차 없이 쫓기면서 수학 풀이에 시간을 낭비해온 것은 아닌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문사철은 고사하고 이웃 사회과학 분야와도 담을 쌓고 인간세계와 무관한 게임을 즐겨온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경제학이 과연 현실의 경제문제 해결에 얼마나 쓸모 있는지 물어볼 때다.

이것이 과학적 환상에 빠져 거의 형식 학문화하고 있는 한국 경제학에 대해 피케티 열풍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본다. 최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매일 같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고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약자를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남겼듯이, 피케티는 한국 경제학자들에게 더 이상 형식적 경제학에 매몰되지 말고 불평등 문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돌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